01 교회소식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창대한 축복을 받은 우리 교회가 개척 3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린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를 이루었다.

03 특집

"처음부터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함께한 주현권 목사의 간증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고향에서 인도한 무안 '성산제일교회 부흥성회'.

04 간증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다

이재록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크라이나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와 세계 선교 현장에 함께해 온 한주경 찬양선교사 간증.

만민뉴스

제798호 2017년 7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만민중앙교회

만민 하계수련회

2002 인도 연합대성회

1982년 7월 25일, 태양이 작열할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시 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이재록 전도사는 만민교회를 세우고 개척예배를 드렸다. 이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과 함께 '만민'이라는 교회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재록 전도사는 교회 개척 전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으며 권능을 받은 후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그 결과 기사(奇事)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개척 4년 만에 등록교인 3천 명을 넘는 부흥을 이루었다.

1986년 5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발간하고 '만민뉴스'를 제작하는 등 문서선교에 힘쓰며 국내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1990년 5월, 이재록 목사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성령강림대회를 인도하면서부터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지교회 설립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91년 7월,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형성하고, '92 세계성령화대성회', '93 워싱턴 복음화 연합대성회', '94 아프리카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세미나', '94 서울 성령화대성회', '94 일본 이다지역 연합대성회', '95 LA 세계선교대회',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96 하와이한인교회 연합성회 및 교역자 세미나', '96 아르헨티나 한인축복대성회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97 제2회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 등 교계행사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게 되었다.

특히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이재록 목사는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 시 강사로 초청되어 따르는 표적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였다.

2007년부터는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성결의 복음을 권능의 역사와 더불어 전했고,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gcntv.org)과 61개 언어로 번역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의학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 사례를 확실히 입증하는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과 MIS(만민국제신학교) 등을 통해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뤄가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전 세계 1만 1천여 개의 지·협력교회를 둔 글로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여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고 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기온 조절 등 자연 환경과 사람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창대히 펼쳐나갈 것이다.

한편, 7월 23일 주일 저녁예배 시에는 교회 개척 35주년 기념 축하공연이 있다.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소리선교단, 천상의무용팀, 빛의소리중창단, 크리스탈싱어즈, 글로리워십팀, 권능팀, 하모니팀이 출연하여 35년간 만민중앙교회를 친히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연주, 무용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1982년 7월 25일, 우리 교회는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의 성도가 개척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1만 1천여 지·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단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요. 그가 떠날 때는 75세로 당시 대(代)를 이을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창 12장).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리라 축복하셨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 방법대로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에도 조바심을 내거나 의심하지 않았고, 변개함 없이 믿고 기쁨으로 기다려 마침내 100세라는 나이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었습니다(창 21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히 11:19) 조금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지요. 신실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므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가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지요. 개척 이후 무수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불가능하다." 하거나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했기에 만민 위에 뛰어난 제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2.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험난한 광야에 머무르면서 시시때때로 양식과 물이 없다고, 모세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갖가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 열 재앙을 나타내 보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믿음이 되었고,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목도할 수 있었지요. 출애굽한 직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치자 마실 물이 솟아났고, 광야에서 주리는 백성을 위해 간구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지키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내 다시 불평과 원망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범죄한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 민족을 이루리라 하실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출 32:32). 그리고 어찌하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매순간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 또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겪은 연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하고 충성스런 양 떼도 많았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거나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이 떠올라 애통함으로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로 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지요.

그럴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제 생명보다 더 귀했고, 모두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더니 놀라운 차원의 권능을 허락하셨으며, 교회의 부흥과 축복도 더하셨습니다.

3. 개척 이후 '목자와 교회가 보여온 믿음'입니다

개척 당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이루며 대성전을 이루는 만민 위에 뛰어난 제단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길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의심하거나 믿음이 변개한 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꾼과 성도들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생각을 동원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을 때에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꾼들을 키워갔지요.

교회가 애매히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무수한 영혼이 몰려올 것을 의심치 않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자격을 갖춰 나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대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을 좇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00년부터 해외 연합대성회를 열게 하심으로 5대양 6대주의 영적인 요지들을 성결의 복음과 강력한 권능으로 깨우게 하셨습니다. 또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게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GCN방송과 각국 언어로 번역된 책자와 신문 등으로 세계 곳곳의 복음의 사각지대까지 빈틈없이 커버하시며,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으로 하나님 권능을 통한 치료사례를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증명함으로써 권능의 역사들을 확증해 보이고 계십니다. MIS(만민국제신학교)를 통해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깨움으로 많은 교회가 깨어나 새롭게 변화되는 등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를 통해 성도들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단에서 주의 종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 이웃집 누나의 전도로 열심히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봄,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한 뒤로는 계획과 달리 술과 세상에 빠져 살았지요.

1978년, 큰아들 걱정에 날마다 눈물로 새벽기도를 하시던 어머니는 급기야 아버지를 설득하여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코올 중독 상태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하나님, 이 아들이 지옥만은 면케 해 주세요.” 애원하듯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1980년 5월, 저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부흥성회에 참석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5일 금식을 하며 술과 담배를 끊고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그리하여 1982년 9월, 당시 개척한 지 두 달 된 만민교회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종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

1984년 5월,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신학생들에게 숙식과 학비를 지원하며 많은 주의 종을 양육하셨습니다. 개척 초기인데도 “세계 선교를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오직 믿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의 행군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주현권 목사 (3대대 대교구장)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만민기도원 총무 등을 거치며 장년 교구를 담당하여 현재는 3대대 대교구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몸소 본을 보이시는 당회장님을 통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은 어떠한 사랑과 축복, 보장을 받는지 친히 목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 삶의 푯대인 당회장님께서는 주의 종으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신뢰의 행함,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경 말씀을 확증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과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았습니다. 장년들은 물론 젊은이, 학생, 아동들도 시간만 나면 기도실에 들어가 땀이 흐르도록 뜨겁게 기도하였지요. 또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내 치료받고 응답받았지요.

더욱이 이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몰려와 구원받는 성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 사람도 과연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중한 병으로 사선을 넘나들던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 주의 종과 일꾼이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지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늘 함께하시며 가장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 예로 1987년 7월,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상류에 금모래 은모래 백사장에서 학생주일학교 하계수련회가 개최되기 전 일입니다. 전국 곳곳에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학생들이 강둑에서 불과 1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고, 더욱이 인근 댐에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어 수위가 점점 높아져 둑을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니 강물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위가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지요.

이처럼 저는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35년간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종들이 큰 권능을 받아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시며 무궁무진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참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축복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신속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영의 믿음을 이뤄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더욱 창대히 이루는 데 썩어지는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에서 인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산제일교회 부흥성회’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성산제일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하셨다. 1983년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구원, 기적, 부활, 재림, 천국에 대해 증거하며 기도해 줌으로 놀라운 회개와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첫날, 10년 이상 걷지도 못하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루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었다. 변순자 권사(3대대 29교구)는 “그 당시 저는 전남 신안군 지도면에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 조카며느리가 기도받고 걸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늘 제 조카가 며느리를 업고 다녀야 했거든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못 걷던 사람이 기도받고 걸었다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라며 그때의 감동을 전했다.

이 일은 이내 소문이 퍼져 다음날부터 무려 23개 교회에서 참석했고, 성전 안은 강대상이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빼곡해 성전 마당까지 가득했다. 그중에는 나병환자도 부흥성회 전단지를 보고 몰래 참석해 치료받은 후 마을에 내려와 살게 됨으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 한 분은 강사 이재록 목사에게 매일 식혜를 가져와 정성껏 대접하더니 마지막 날 허리가 쭉 펴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 이 외에도 각색 질병을 치료받은 많은 성도가 일어나 춤을 추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영적인 아버지,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리 코노발로프 목사 (우크라이나 천국의 문 교회)

1992년, 당시 두 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는 부흥하여 지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 러시아·우크라이나 연합 교회협의회 우크라이나 지역 총회장으로 15년간 열정을 다해 사역하였는데 이 단체가 와해되고 말았지요. 저는 심한 좌절감에 빠졌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고민하며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2009년 9월,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목회자들을 통해 저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강사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 기도도 받았습니다. 성회 시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큰 은혜를 받은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만민의 사역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이수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여 성결의 복음의 가르침에 확신을 얻게 되었지요.

마침내 2017년 5월, 저는 사모하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결한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교회에 모여 기도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고, 정성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가까이 뵈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며 마음이 넓고 깊으신지, 영혼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마치 영적인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가 사역하는 '천국의 문 교회'에서 이수진 목사님을 초청해 '손수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자 지팡이와 목발을 버리고 시력이 좋아졌으며, 심장질환, 척추골절, 갑상선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제는 저와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역,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이재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더불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주경 찬양선교사 (예능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1985년 10월, 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찬양을 좋아해 흰돌성가대를 시작으로 단비중창단, 나사렛성가대를 거쳐 할렐루야선교단(현재 천상의소리 선교단)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실 때 저는 찬양 사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나라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며 권능을 베푸심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특히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시에는 주정부에서 집회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돌연 현지 경찰들이 장소를 봉쇄해 철문이 닫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배치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12시가 되면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미리 들어와 계시던 목회자 및 성도들과 뜨겁게 믿음으로 찬양하였지요.

잠시 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철문이 열려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날 성회 시에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졌던 감동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2004년 3월, 어느 날부터인가 기력이 없고 헛기침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으니 중증 폐결핵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산다 해도 폐가 굳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지요. 이후 제 폐에는 벌집처럼 구멍이 생겨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 중심에서 깨달았고, 이후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으며 활발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스라엘 선교에 함께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당회장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소외받던 이스라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며, 크리스탈포럼 목회자들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치료의 역사들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제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만민의 세계 선교 현장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욱 생명 다한 권능의 찬양사역으로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